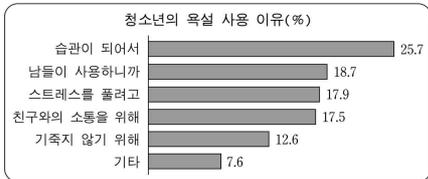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법)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녹음 자료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떠십니까? 우리들, 정말 욕 많이 하죠?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일상적인 언어생활 중에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욕을 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줌.) 여러 이유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욕을 하게 되지요.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욕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마 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자는 것과 욕설 습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운 말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급에서 학교 전체, 더 나아가 청소년 문화 전체에까지 퍼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 ..... ①

2. 청중 분석  
 • 대상 : 학습 친구들  
 • 사전 지식 : 청소년의 욕설 사용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을 것임.  
 • 특성 : 절반 정도는 욕설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욕설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②

3. 발표 전략  
 • 녹음 자료와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③  
 •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 .... ④  
 •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 .... ⑤

2.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께서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별히 스트레스에 주목한 까닭을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여가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좀 막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 ④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⑤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경로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1 ~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법)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 (1) 太子(태자) | 東門(동문) 밖기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 (2) 부텃 누니 비록 볼기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으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으)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텃'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 (3)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호노니  
(너희 스승을 뵈고자 하니)
- (4) 부텃 敎化(교화)를 뉘습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습-'과 (4)의 '-습-'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습-'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습-'은 '敎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ㄱ~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王(왕)스 일후른 濶波(습파) | 러시니  
(왕의 이름은 습파이시더니)
  - ㄴ. 님긔 恩私(은사)를 값습고져  
(임금의 은사를 값고자)
  - ㄷ.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보습고  
(용왕이 세존을 뵈고)
  - ㄹ. 太子(태자) | 講堂(강당)애 모도시니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 ㅁ. 諸佛(제불)을 供養(공양) 호습게 호쇼서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 ① ㄱ에서는 '-시-'를 통해 '일후'를 높임으로써 '王(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② ㄴ에서는 '-습-'을 통해 '恩私(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긔'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③ ㄷ에서는 '-습-'을 통해 '世尊(세존)'을 높임으로써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④ ㄹ에서는 '-시-'를 통해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⑤ ㅁ에서는 '-습-'을 통해 '諸佛(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2.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십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아는 여전히 ㉠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안방으로 ㉡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 타당하시다.

**학생 1**

나는 '㉡,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학생 2**

나는 '㉡'와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 ① 소유물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 ④ 신체 부분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국평일 배포 자료 아침 자습 자료 최종

선택 영역 by 교육청, 평가원 정답

2014.예비 A형 화법 (1, 2) 1. ② 2. ④

2018.10 문법 (14, 15) 1. ③ 2. ③